

- 인천시민의 글로벌 문화의식 함양 및 아시아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



2014 인천 인도영화제 상영작

1 키하아니 (Kahaani)



2012/ 122분/ 드라마 · 스릴러

감독: 수조이 고쉬

출연: 비드야 발란, 나와주딘 시디퀴, 파람브라타 차테르지

런던에서 온 그녀의 이름은 비다박치. 콜카타로 출장 온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서 찾아러 왔다고 실종신고를 하나 그 어디에도 남편의 행방을 찾을 수 없고 남편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묵었다는 숙소에도, 그 어디에도 흔적이 없다. 경찰에 단서를 제공해 준 직장의 인사 담당자와 의사는 죽음을 당하고, 정보부 칸은 2년 전 지하철 독가스 테러범인 밀란 담시에 관해 도움을 요청할 뿐이다. 과연 실종된 남편을 찾을 수 있을까?

2 달려라 밀카, 달려 (Bhaag Milkha Bhaag)



2013/ 189분/ 드라마

감독: 라케시 옴프라카시 메흐라

출연: 파르한 악타르, 소남 카푸르, 파벤 말호트라

인도의 전설적인 육상선수 밀카의 일대기를 다룬 대하드라마. "날으는 시크" 로 명성을 날리던 밀카 싱은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그의 인생에 최대 경주를 망친다. 이 망신의 어둠을 뚫고 밀카는 그를 처음으로 달리기 시작하게 만든 과거를 직면하고 실수를 만회한다.

3 비키도너 (Vicky Don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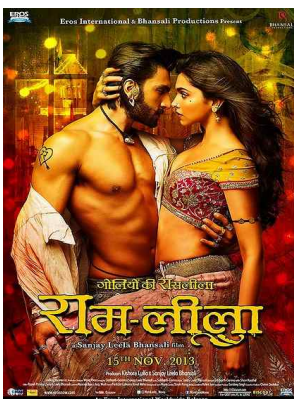
2012/ 126분/ 드라마 · 로맨스

감독: 수지트 서카

출연: 아유쉬만 커라나, 아미 구아탐, 아누 카푸어

델리에 불임 클리닉과 정자은행을 운영하는 차드하 박사는 인공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게 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연이은 시술 실패로 보다 건강하고 우수한 정자를 확보하려 전전긍긍하지만 여의치 않다. 어느 날 건장한 비키가 차드하 박사의 눈에 띄게 되고 박사는 비키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정자를 기증 받는데,,,

4 람릴라 (Ram Leela)



2013/ 150분/ 드라마 · 로맨스

감독: 산제이 릴라 반살리

출연: 디피카 파두콘, 란비르 싱, 프리얀카 초프라

람은 매력적이고 방랑가적인 마을의 로미오인 반면, 릴라는 어느 곳에 구속되지 않은 열정적인 성격의 줄리엣이다. 이 두사람 사이의 유일한 공통점은 두 가족 간의 서로를 향한 증오. 두 집안은 지난 오백년 동안 원수처럼 지내왔다. 하지만 람과 릴라는 첫 눈에 반하고 마는데, 과연 이 두 사람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5 란자나 (Raanjhanaa)

2013/ 140분/ 드라마 · 로맨스

감독: 어난드 라이

출연: 다누쉬, 소남 카푸르



힌두교와 무슬림이라는 종교로 인해 젊은 남녀들이 사랑에 힘들어하고 인생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인도의 바라나시를 배경으로 힌두교 사제 아들인 쿤난이 무슬림 아가씨 조야에게 첫눈에 빠지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우여곡절 끝에 쿤난과 조야는 사랑을 시작하지만 조야의 부모님의 반대로 실패한다. 그리고 8년 후, 다시 바라나시로 조야가 돌아오지만 쿤난이 아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변치않던 쿤난은 조야의 결혼식에 자기도 결혼하고 그녀를 잊겠다고 선언하는데,,,,

부대프로그램

★ 강의로 듣는 인도요가 (5. 26(월), 5. 27(화), 16:30~17:30)

강사: 하쉬바르단 (인도문화원)

인도에서는 어느 도시를 가나 쉽게 요가를 배울 수 있다. 아침마다 공원이나 요가 체육관에서는 호흡법을 연습하고, 웃음요가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16살이 넘으면 누구나 요가식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인도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 요가의 역사와 동작을 알아보고 인도의 문화를 느껴보자.

※ 요가강의는 두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한국어 통역이 제공됩니다.